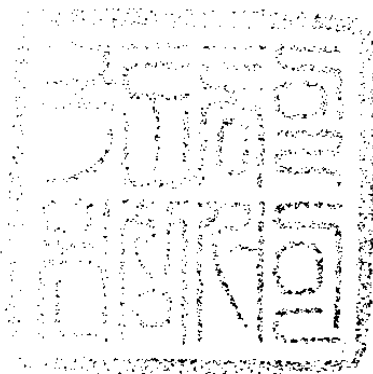


국통 75-1-26

北傀의 自由陣營侵透分析 및 韓國의
對共產圈關係改善誘導方案

1975. 5.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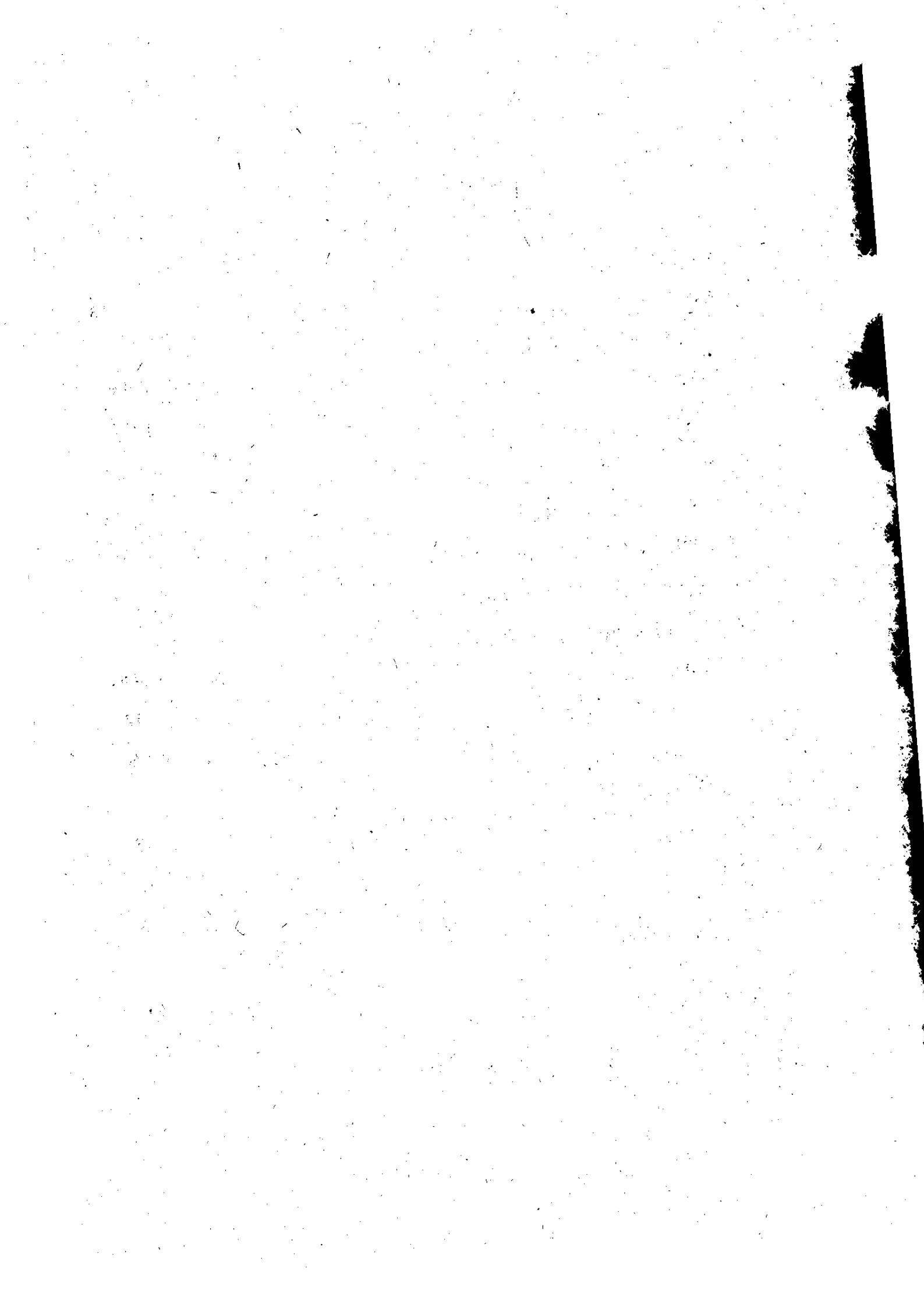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國際問題研究所 池 珠 善

目 次

1. 序 言	3
2. 共產圈의 自由障營 浸透分析	7
가. 共產諸國의 對外戰略基調 및 特徵	10
나. 對自由障營 浸透樣相 및 變化趨移	17
다. 北傀의 浸透樣相 및 現況	27
3.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改善 問題	33
가. 對共產圈 關係改善 必要性	34
1) 政治的 側面	34
2) 經濟的 側面	35
나. 韓國의 共產圈 關係改善 現況	36
1) 政治的 接近現況	37
2) 經濟的 接近現況	38
3) 非政治的 人士交流 現況	40
다. 共產圈의 對韓態度	49
라. 問題點	53
1) 對外的 問題點	53
2) 對內的 問題點	54
4. 結 語	57
5. 對 策	61



1. 序 言

우리는 歷史上 그 種族, 言語, 文化, 經濟 및 政治面에서 單一性
을 자랑한 悠久한 傳統의 民族으로서 自意 아닌 他律的인 結果로
領土는 兩斷되었으며 심지어는 많은 流血과 慘劇을 빚어낸 슬픈
民族이다.

우리 땅에서 停戰이 된지도 20余年이 지난 오늘날 必야흐로
強大國間의 一般的인 趨勢는 이제 理念과 体制의 相異를 넘어 相互
平和的 共存에로의 共同努力을 追求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南北韓의 現實은 不幸하게도 停戰이 된지 20余年
동안 서로의 戰爭遂行能力만을 強化시켜 왔으며 相互間의 不信과
敵對感은 날이 갈수록 더해갈 뿐 이제 언제 第二의 6.25가 再
發할지 모를 不安한 霧囂氣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우기 印支戰에서의 教訓은 우리로 하여금 緊張緩和 追求 趨勢
에 對한 混沌과 失望을 안겨 주고 있지만,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말대로 그렇다고 國際的 緊張緩和 追求趨勢는 갑자기 中斷될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國際的 緊張緩和 趨勢와 北傀의 戰爭挑發壓力에
二重으로 心慮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韓半島 安保의 本質的 問題는 韓半島를 둘러싼 外部勢力에 만 있

는 것이 아니며 唯獨 美國의 對韓政策에만 依存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 스스로가 外部情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定着, 韓國化시킬 것인가 하는 데도 그 焦點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키신저의 東北 亞細亞 和解理論이 美, 소, 日, 中共 等 四強의 南北相互承認에 依한 韓半島 安保体制의 設定에 바탕을 두고 있고 實際로 四強은 그들의 相衝되는 利害가 韓半島에 있어서 劃期的인 變化를 일으키겠다는 冒險보다 分斷된 韓國이라는 現狀維持에 及及하고 있다. 實際로 韓半島紛爭이 發生하지 않는다면 이들 四強이 어느 한 나라도 韓半島의 現狀을 깨트리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当事者인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側의 主導로 南北會談에서부터 6.23 宣言等 갖가지 이니셔티브를 取해 보았으나 그때마다의 北傀態度는 否定的인 또 다른 이니셔티브의 競争만을 招來하고 말았다.

事實 多極的 利害를 하나의 共存 乃至 協調体制로 昇華收斂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昨年 74年度의 第 29次 UN總會를 前後해서부터 새로운 挑戰要因이 現實化하고 있다.

우선 4強은 国力, 國家利益, 理念, 地政學的 位置, 南北韓과의 細

部的인 關係内容에 있어 相当한 隔差가 있는데다가 4強間의 複合的 相關關係가 作用하고 있어 流動性을 免치 못하고 있고, 韓國이 南北韓平和共存段階를 통한 漸進的 平和統一, 衡平의 原則에 立脚한 開放外交等 實質的이고 彈力的인 統一政策을 顯示한데 反하여 北傀는 이른바 外勢 干涉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한다는 名目아래 偽接平和攻勢와 共產圈 以外の 地域의 開放國家에의 浸透 容易性에 着眼하여 國際的 進出에 注力하고 있으며, 오는 75年度 第30次 UN 總會에서 外軍撤收 問題를 들고 票對決을 強制할 것이 確實視되고 있으며 中共 및 其他 共產圈은 一糸不乱하게 그리고 非同盟國家들은 北傀에 同調하여 韓半島問題에 UN 安保理事會가 關与하는데 反對하고 있고 소련은 韓半島問題에 超然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기 始作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國際舞台에서 不利한 与件을 안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第30次 UN 總會에 對備한다는 點에서나 北傀보다 不利한 与件을 開拓하여 最少限 同等한 立場까지라도 끌어올리기 爲해서는 共產圈 및 第3世界國家에 對한 總力外交를 펴는 한편 長期的 眼目에서의 關係改善政策이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2. 共產圈의 自由陣營 浸透分析

2次大戰以後 美國과 蘇聯을 頂點으로 全世界는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兩大陣營으로 分裂되고, 다시 이 分裂된 兩大陣營 사이에 冷戰과 熱戰을 겪어 왔으며 그러는 동안 美國이 越南戰 分入에서 얻은 打擊과 中東地域等 局地戰에 介入함으로써 그동안 출판 成長해 온 第3勢力圈으로부터 받게 된 挑戰과 함께, 戰後 經濟力과 軍事力 特히 核力을 伸張해 온 中共과 日本, 西歐勢力의 挑戰을 함께 받게 되자 美國의 自意에 依하든 아니든 간에 드디어 兩大陣營의 概念은 多極化라는 國際秩序의 새로운 概念으로 變貌해 가는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勿論 現在 말하여지고 있는 多極化現象이라는 것이 2次大戰以後의 兩極體制를 消滅시키고 새로이 登場한 것은 아니라는 點에서 오늘날의 國際的, 特히 아세아에 있어서의 勢力構造가 基本的으로는 美·蘇라는 超強大國을 主軸으로 하는 兩極體制와 이와 並行하여 4強이 交叉하는, 特히 部分的 脫「이데올로기」化에서 起因하는 一部 古典的 意味에서의 勢力均衡現象 即 多極化體制가 相互交叉하는 重多極化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는 點에서 過去의 冷戰體制下에서와 같이 단순한 「自由陣營」이다 「共產陣營」이다 라는 公式과 論理만으로는 政策判斷의 價值基準으

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卽 이러한 勢力構造下에서는 冷戰
的인 明確한 二個의 政治 「블록」이라는 觀點에서만 國際現象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만 것이다. 冷戰體制下에서와 같이 同盟國
間에는 「完全한 敵對關係」가 形成되는 것이라면 우리와 같은 立
場에서 政策選擇의 余地는 더욱 쉬운 方向으로 展開될 수 있는
일이라 하지만 全多極化體制에서는 同盟國內部間에서 不完全한 同盟
關係가 惹起되며 敵對「블록」間에도 不完全한 敵對關係가 發生된다
는데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 卽에서 政治秩序上 國家間的 關係는
자연히 多角的 國家利害에 따라 進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過去와 같은 冷戰的 體制下에서와 같이 單純한 兩端論法으로서는
解決할 수 없는 問題를 提起하고 있으며 「敵과의 協商」은 어떤
意味에서 「友邦과의 協商」과도 通하며 서로 連鎖現狀을 나타내는
일까지도 惹起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從來 美·蘇 超強大國만이 保有하여 兩대陣營 概念의 主役
을 해 오던 核力이라는 것이, 優劣의 差는 있다 하더라도 이미
普遍化 趨勢로 向하고 있어 兩대陣營으로서의 美·蘇 核deterrence
는 弱화되고 여기에 第3 勢力圈의 政治, 經濟, 軍事的 立場 強化,
強大國間的 協調關係라는 이른바 「데탕트」現象 등으로 美·蘇의
自己陣營國家에 對한 牽制力이 弱化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共產圈」, 「自由障營」 「浸透」 등의 用語에는 어떤 限界나 또는 本稿 特有的 意味를 지님에 있어 說明이 加해져야 할 것이다.

即, 우리가 여기에서 考察하고자 하는 方向은 韓國이 共產圈에 어떻게 浸透해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方法上的 問題라고 보면, 強大國間 東西關係나 先進國間 東西關係란 比論의 對象이 될 수도 없고 方法上的 援用價值도 없으므로 拳論함에 突益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共產圈에 있어서 蘇聯이나 中共이 先進國에 어떻게 浸透해 왔으며,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對象國의 反應-能動的으로 볼 때 相互浸透-은 如何한가, 北傀는 어떠한 方法으로 先進諸國, 特別 共產圈域外 地域과 그 가운데도 從來 自由障營으로 일컬어져 온 國家들에 對한 浸透方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檢討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蘇聯과 中共이 全世界의 先進諸國-開發途上國이라 中間 概念을 除外한-特別 亞細亞를 中心으로한 浸透樣相을 分析하고 展望해 보며, 한편으로 北傀가 如何히 第三世界에 파고 들므로써 自由障營國家 浸透에 援用하고 있는가 하는데 重點을 두고 展開하는 가운데 그 逆方向으로 韓國이 共產圈에 浸透하는

方案과 連結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 共產諸國 對外戰略基調 및 特徵

共產諸國의 對外戰略基調를 살펴 봄에는 먼저 二大宗主國이라 할 수 있는 蘇聯과 中共에 關해서 먼저 言及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우리와 競爭關係에 있는 北傀의 戰略을 알아 봄으로써 相對的인 戰略 比較가 可能할 것이다.

「마르크스·엥겔스」의 共產黨 宣言은 世界의 共產化를 窮極의 目標로 하였으나, 이 目標은 그대로 蘇聯外交의 最高目標가 되어 蘇聯은 自國을 世界共產運動의 戰略的 基地로 看做해 왔다. 蘇聯의 歷代 指導者들은 國內政策樹立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外交政策에 있어서도 「마르크스」主義에 根源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元來의 「마르크스」主義는 蘇聯의 風土 속에서 얻는 그 實踐的 過程 속에서 變化發展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外交面 考察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化와 發展을 究明하는 것을 배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要컨대 蘇聯의 指導者들이 主張하고 確信하고 있는 理論, 卽 「마르크스·레닌」主義는 蘇聯 外交政策의 基調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까닭에 蘇聯의 外交는 世界共

産運動의 戰術的인 面과 國家의 政策的인 面이라는 2개의 面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世界共産化의 目的이 크게 提昌된 것은 革命直後 數年間으로서 1927年 一國社會主義 建設方針이 採択된 後부터는 後退하고 蘇聯國內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 目的에 從屬되어 自由世界로부터의 反蘇政策에 對한 對應策의 補助 手段, 牽制手段化한 感이 強하게 湧겼다. 蘇聯의 外交政策은 基本的으로 蘇聯國內의 社會主義建設이라고 하는 要因에 依하여 決定된다. 戰術的인 政策決定의 基礎가 된다는 것은 그때 그때의 國際 情勢分析, 自由世界 諸國의 對蘇政策인 것이다. 그 위에 또한 國家的 利益, 經濟的, 政治的, 軍事的 要因 및 政治 地理的 條件이 強하게 作用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國際 情勢, 諸國의 對蘇政策等을 檢討함으로써 「모스크바」의 今後의 對外 政策을 予測할 수 있다.

蘇聯外交에는 恆常 共産主義 「이데올로기」가 붙어다녀 階級意識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레닌」은 「마키아벨리」, 「메테르니히」, 「클라우세비치」等을 繼續 研究해 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側近에 對해 謀略, 奸計, 懷柔, 妥協, 相對方 諸國家間의 矛盾利用, 強敵에 對해서는 그 内部에 浸透하여 内部로부터의 崩壞를 企圖하여 왔으며, 이는 只수도 마찬가지이다. 蘇聯은 또한 外國 政府를

相對하지 않고 直接 國民에 呼訴하여 國民들로 하여금 行動하게 하는 한편 左翼團體를 利用하여 왔다. 外國貿易도 外交政策의 一部로서 單純한 經濟的으로만 利用되지는 않았다.

蘇聯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國際法上的 原則도 그것이 自國에 有利한 境遇에만, 또한 相對方 國家가 그것을 지키는 範圍內에서만 지키고 있다. 條約上的 義務도 그것이 自國에 不利한 境遇에는 헌신적 처럼 버리기가 일쑤이다. 國際問題의 解決에 있어서도 解決에 努力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를 더욱 複雜하게 擴大 遲延시키고 相對方을 混亂交亂시켜 解決의 一步直前에서 決裂시키는 境遇가 許多히 많다. 核裝備를 背景으로 核武器에 依한 공갈도 그들이 잘 쓰고 있는 手法의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中共의 對外政策 및 戰略基調를 살펴보기로 한다.

中共은 中共革命의 三大妙法(統一戰線, 武裝鬪爭, 黨建設)을 堅持함으로써 共產革命을 達成하였으며, 特히 統一戰線을 追求하여 「國共合作」이라는 美名下에 自體의 力量을 強化하면서 抗日戰에 勝利하고, 結局 中國大陸을 掌握하였다.

毛沢東은 統一戰線을 그 展開過程에서 보다 具體的인 革命戰術로서 確立하고, 더우기 統一戰線 原則에 立脚하여 世界革命戰略으로 中間地帶論 또는 第3世界論을 適用, 毛沢東의 獨特한 世界革命戰略

을 追求하여 왔다. 이와같은 中共의 統一戰線 發展過程을 살펴볼 때, 오늘날 北傀 勞動黨이 南北對話가 開始되었는데도 不拘하고, 1970.11 第5次 黨大會에서 對南赤化統一의 方案으로 人民民主主義革命理論을 採択함과 同時에 「統一戰線」採択을 決意했고, 특히 北傀가 武力에 依한 統轄이 不可能해질수록 對南統一戰線工作은 勿論, 韓國의 國際的 孤立化를 促進시키기 爲해 中共과 提携하여 國際的 統一戰線을 構築코자 더욱 強力한 外交活動을 展開할 것이므로 「6.23」宣言의 根本意圖를 바탕으로 中·蘇를 비롯한 共產國 接近에 加一層 努力할 必要性이 切實해지고 있어 中共의 統一戰線의 本質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

元來 統一戰線은 1920年代初 「코민테른」을 통해 「레닌」에 依하여 提議된 政治戰術로서 世界 「프롤레타리아」團結을 爲해 使用되었던 것인데, 毛沢東이 이를 中國에 알맞는 革命戰術로 發展시켜 理論적으로 體系化시켰고, 長期間의 運用過程에서 그 主要 原則이 戰略概念으로 認識되게 된 것이다.

統一戰線戰術의 主된 原則은 共產革命 過程에서 主要한 敵을 孤立시키기 爲해서는 「主要하지 않은 敵」과 聯合한다는 것으로서 即 「敵의 極小化와 我方의 極大化」 原則으로 主要한 敵을 打擊하고 나서 남은 敵中에서의 또다른 敵을 孤立시켜 結局 革命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主要한 敵」과 「主要하지 않은 敵」의 區別은 主要矛盾과 後次的인 矛盾을 分別 利用하는 데서 비롯되며, 이러한 分析法으로 꾸며진 世界革命 推進上의 初期理論이 「中間地帶論」인 바, 現在의 「第三世界論」 역시 같이 緣由되어 있다. 要컨대 統一戰線은 毛沢東이 体系的으로 確立한 中國共産黨의 對內的 政權奪取 秘法의 하나지만 「中國革命」을 「世界革命」으로 對替한다면 그대로 中共의 世界革命戰略의 基本原型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戰線의 本質은 自体가 弱弱일 때는 表面的으로 「合作」 또는 「政治協商」 등을 내걸어 敵과 聯合形式을 取하면서 暗暗裡에 自体의 戰力을 發展시켜 政治的 地盤을 擴大하려는 戰術的 陰謀이며, 相對方보다 優勢해지며 모든 敵을 하나 하나 打撃하여 窮極的으로 政權을 奪取하고 世界赤化革命을 達成하려는 高度의 「政治戰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北傀의 基本的 政策方向을 살펴 본다.

北韓外交政策의 基本路線은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의 「全人民武裝化」 「全國土 要塞化」를 豪言한 內容과 1971年 4月 12日 最高人民會議 4期 5次會議에서 許淡이 提示한 바 8個項 統一方案에서 提示된 「美軍撤収」, 「南北韓減軍」, 「韓美防衛條約 및 韓日條約의 廢棄」 後에 「南北聯邦制」의 實現을 提示한

外
三

內容等에서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南朝鮮革命論」에 基礎한 赤化統一에 있음은 疑心할 余地가 없는 것이다. 단지 金日成이 1971年 9月 日本 朝日新聞과의 會見에서 밝힌 바 「緊張緩和」로 흐르고 있는 狀況에서 情勢에 逆行할 意思는 없다」고 闡明했다든지 最近의 中共訪問에서 南韓에 對한 革命武力支援 壯談後 連이어 「루마니아」訪問時의 平和的 統一 等 때에 따라 戰術的인 變化를 꾀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北韓의 外交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이란 戰略的인 目的엔 變動이 없이 오직 戰術的인 變化에 따른 偽裝術을 驅使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的인 立場에선 北韓의 外交는 언제나 「統一」問題에 歸結되어 있으며 그 內容으로서 提示된 것들이 所謂 말하는 南北間의 平和協定 締結과 지난해 6月 23日에 나온 「高麗連邦制」案 까지 모두가 窮極的인 戰略目的 達成을 爲한 平和攻勢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戰略下에

① 自體의 防衛體制를 確立하고 安全을 維持하기 爲한 社會主義陣營과의 團結과 紐帶의 強化

② 國際的 承認과 支持를 獲得하기 爲하여 社會制度의 相異한 國家들과의 紐帶增進

③ 北韓의 對南赤化에 決定的 妨害要因인 美國의 對韓 軍事的 支援 및 政治的 支援을 反對하는 反帝 反植民主義의 鬭爭

④ 広範한 國家的 承認과 支持를 받고 있는 韓國의 地位를 弱 化시킴과 同時에 그들의 國際的 地位 向上

⑤ 北韓의 統一方案에 對한 國際的 支持獲得과 韓半島 全域의 共產化의 達成

⑥ 全世界의 赤化를 爲한 國際共產主義의 一翼으로서의 「東方哨 所」 役割等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하여 最近에 두어 온 外交力點을 보면,

74 년에는

- ① 新生獨立國의 反美鬭爭 支援
- ② 積極的인 海外僑胞 包摂工作 展開
- ③ 平和統一 宣傳汪力
- ④ 對西方 人民外交 強化 等에

그리고 75 년에는

- ① 社會主義國家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統一團結
- ② 第3世界 人民과 政治的 團結, 經濟技術 協調
- ③ 日本人民을 비롯한 世界革命的 人民들과 連帶性 強化
- ④ 反帝力량의 統一戰線 擴大發展

⑤ 6.23 宣言(「2個朝鮮策動」) 沮止 等に 두고 있다.

나. 對自由陣營을 浸透樣相 및 變化推移

共產國의 二大強國이 全世界 自由陣營으로 浸透해 가는 過程이 나 東歐國의 그것도 우리가 共產國에 接近하기 爲한 比較分析의 資料로서 適當치 않다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共產國의 二大 強國이 亞細亞國家들에게 어떻게 接近乃至 浸透해 왔으며 亞洲各國들과의 相互關聯動向은 어떠한가를 다루기로 한다.

蘇聯의 戰略은 한 마디로 反帝國主義, 反植民主義를 主張하여 革命을 奨勵하는 政策을 써 왔으나 1960年代에 와서 中·蘇 對立으로 因하여 蘇聯의 亞細亞 政策은 變化를 일으키기 始作하였다. 蘇聯이 亞細亞外交에 새로운 「패턴」을 導入하기 始作하였으니 그것이 곧 亞細亞集團安保 設立을 爲한 行動이다.

1969年 6月7日 世界共產黨會議에서 「브레즈네프」書記長이 提案한 이 構想의 內容은 아직까지도 曖昧한 點이 적지 않으나 그 目的은 일적부터 明確하여 왔다. 結局 이 構想을 實現함으로써 蘇聯은 亞細亞에 있어서 美國과 中共의 勢力을 排除하고 蘇聯의

國益과 蘇聯이 「해끼모니」를 삼은 國際共產主義体制의 安全을 지키고, 나아가 亞細亞 諸國의 社會主義에로의 變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構想을 蘇聯의 亞細亞外交의 現狀固定化와 革命의 輸出이라는 兩面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點은 印支戰에서 蘇聯이 보여준 바 있는 蘇聯의 基本戰略의 一環이다.

또 한편 強大國間 問題에서 볼 때에는 蘇聯이 中共 뿐만 아니라 美國과도 世界 到處에서 競争 乃至는 對決하지 않으면 안 될 位置에 있기 때문에 蘇聯이 60年代 以後 가장 念慮한 것은 美 中共의 接近이 있으나 蘇聯이 이를 阻止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蘇聯은 中共과도 對立으로 因하여 世界 各處에서 制約을 받고 있으며 中·蘇紛爭이 없다면 中東이나 東南亞 및 「아프리카」大陸에서 勢力伸張을 퍼할 수 있겠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目的은 1969年 5月29日字 「이즈베스차」紙의 「마르베프」의 論文에 依하여도 그 輪廓이 確然해졌다.

即 美軍의 東南亞地域에서의 撤収와 英軍의 「수에즈」以東에서의 撤収로 因하여 생기는 힘의 空白을 메꾸기 爲하여 中共이 南進政策을 쓸 可能性이 많고 亞細亞地域에서의 外國軍撤収는 集團安保의

前提가 된다는 것이다.

蘇聯의 이러한 意圖를 中共은 美國의 NATO 再生産에 지나지 않으며, 故「텔레스」의 쓰레기통에서 蘇聯指導者가 줏어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後 蘇聯은 이 構想이 中共封鎖가 아니라고 再三 強調하고 있으나 이 構想이 中共을 強하게 意識하고 반들어지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고 亞細亞諸國을 中共과 美國으로부터 배어내서 蘇聯의 影響力을 이 地域에 強化하려고 하는 것이 集團安保가 노리는 點이다.

蘇聯이 影響力을 強化하는 方法으로서 東南亞에 있어서도 現狀維持와 革命輸出 三面的 側面이 있는 同時에 政府關係의 擴大와 民族解放鬪爭支援이라는 두가지 戰略으로 展開되고 있다.

蘇聯 자신도 이 構想이 그렇게 빨리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中共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른 亞細亞諸國에 對한 影響力의 向上 및 이 地域國家들의 中共傾斜傾向은 蘇聯의 目的 實現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蘇聯이 事態의 帰趨를 傍視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爲해서 多國間의 集團安保構想을 實現하기 爲해서 亞細亞 諸國間 雙方間 安全保障을 쌓아 올려가는 作業 即 各個遂破作戰을 써오고 있으며 地域「그룹」에 對한 態度

表示와 接近動向으로는 ASPAC이나 ASEAN과 같은 軍事同盟의 色彩가 적은 機構에 對해서는 前과 같이 敵意를 품지 않고 오히려 亞細亞集團安保構想의 實現을 促進할 수 있다고 ASEAN을 높이 評價하였으며 ASEAN의 中立化構想은 中共의 浸透阻止에 一益이 될 수 있다고 看做하고 있는 것 같은 態度를 取해 오고 있다. 勿論 ASPAC은 現在 解体된 것이나 다름 없는 狀態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SEATO나 CENTO 같은 이른바 軍事同盟에는 激烈한 攻勢立場을 繼續하고 있다. 한편 일단 政府間 關係擴大가 實現되고 있는 나라들과 其他國家에도 經濟的 軍事的 援助를 實施하거나 미끼로 使用해 오고 있다.

또한 이 地域海洋에 海軍力을 大規模로 配置하여 亞細亞諸國의 心理的인 信賴를 確保하려는 進出方法 이른바 砲艦外交로 軍事的으로 消極的으로, 政治的으로는 攻勢의 方法을 取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蘇聯이 東南亞 특히 從來 自由障營의 概念下에 있어 온 東南亞諸國에 具體的으로 進出 乃至 接近해 왔는가를 살펴 본다.

1) 印度

「후루시초프」時代부터 友好的인 徵候를 보이기 始作한 徵候를 보이기 始作한 蘇聯과 印度는 「타시켄트」宣言(66年 1月)

以後 急激한 接近傾向을 보여 왔다.

1968年 1月 「코시긴」首相이 印度를 訪問한 後 이어서 蘇聯 艦隊가 印度에 寄港할 程度로 急進展하였으며 蘇聯이 印度에 接近하는 것은 恆常 蘇聯 勢力圈의 影響下에 묶어두고 戰略적인 關係에서 印度에서의 軍事基地 獲得을 目標로 하여 왔다.

그리하여 60年代 印度에 對한 經濟援助는 9億弗 以上을 提供하였고 71.8 「그로마코」外相의 訪問에 依하여 事實上 同盟條約이라 할 수 있는 印·蘇 平和友好協力條約이 締結되었고 이 後 印度·「파키스탄」間 戰爭을 通하여 蘇聯이 印度에 只今까지 行하여 온 軍事援助는 20億弗어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73年 11月에는 「브레즈네프」書記長이, 그리고 75年 2月에는 「그레츠크」國防相이 各各 印度를 訪問하고 印·소 友好關係를 더욱 密接히 維持, 強化하도록 한편 印度洋 進出基盤을 다졌다.

그러나 蘇聯이 이와 같이 印度浸透에 努力한 代價로 나타났어야 할 印度의 蘇聯에 對한 亞洲集團安保構想同意라든가 海軍基地 提供 등과 같은 反應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는 印度의 非同盟政策에 對한 世界的 輿論 때문이기도 하고, 印度의 強大國에 對한 印度洋上 霸權競爭 反對立場을 蘇聯이 勘案한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지금까지의 여러 報道를 綜合해 볼 때 蘇聯은 印度의

「비사카파트남」이나 「안다만」諸島等地에 寄港의 便利는 提供받고 있는 것 같다.

2) 파키스탄

蘇聯은 印·「파」紛爭의 調整 以後 「파키스탄」을 可能한 限 中共으로부터 隔離하여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印度-「방글라데쉬」를 連結시켜 보려고 試圖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印·「파」戰時 印度에 大規模 援助를 提供하고 印度를 支持함으로써 「파키스탄」과 疎遠해지긴 했으나 印-「파」戰 以後 다시 蘇聯과의 協調關係가 摸索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1965年 共產主義者들의 「쿠데타」 未遂事件 以後 執權한 「수하르토」大統領은 親西方政策으로 轉換하고 蘇聯은 이에 對印尼 經濟援助를 中斷하고 觀望하는 態度를 取하다가 69年 8月 蘇聯 經濟使節團의 印尼訪問을 契機로 再接近하기 始作하였다. 印尼側도 「수카르노」時代의 蘇聯 借款償還問題等 때문에 對蘇交流에 臨하게 되었고 그 後 經濟 및 軍事援助를 再開하기로 했다.

4) 「말레이시아」

蘇聯과 「말레이시아」는 67年 4月 貿易協定을 締結하고, 67年 11月 外交關係를 樹立한 以來 相互訪問外交 및 貿易關係增

進을 통하여 서로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려고 努力해 왔다. 그
後 蘇聯은 「말레이시아」의 經濟開發을 爲한 援助提供을 미끼로
亞州集團安保構想에 同意해 주기로 打診해 왔으나 「말레이시아」
側은 ASEAN의 中立化構想을 내세워 이에 否定的 態度를 堅持해
왔다.

5) 泰 国

蘇聯은 傳統的으로 反共國家이 있으며 對美依存도가 높은 泰國
에게도 積極的인 接近姿勢를 보여 왔다. 泰國도 國內美軍基地의
縮少와 越南需要의 中斷으로 經濟事情이 惡化된 데다가 最近에는
美軍의 東南亞 公約 信賴에 따르는 危險度를 勘察하여, 東歐 및
蘇聯과 中共에의 進路를 摸索하고 있다. 75年 5月에는 蘇聯
「프라우다」紙의 支局 設置가 決定되고 있다.

6) 「필리핀」

蘇聯은 反共國家이며 美國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필리핀」
에 對하여도 數次에 걸쳐 兩國間 障壁을 除去하고 外交關係를 樹
立할 것을 提議하여 왔다. 그러나 「필리핀」側은 蘇聯과의 急速
한 關係改善으로 中共의 비위를 거슬리기를 願치 않으므로 中共과
의 外交關係樹立 時期를 一致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兩側은 相互訪問을 통하여 그리고 經濟, 文化交流를 통하여

外
五

接近해 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中共의 對東南亞 進出關係를 살펴본다.

中共은 앞에서論했듯이 統一戰線戰略을 驅使하면서 한편으로는 才三世界論, 中間地帶論 등을 基調로 才三世界 및 亞細亞의 從來 自由陣營 國家들에 浸透하고 있고 이들 東南亞諸國은 美國의 東南 撤収 趨勢와 蘇聯의 中共封鎖策에 対応하여 強穩 兩面으로 戰術을 驅使하고 있다. 特히 東南亞地域에는 広範하게 華僑가 갈려 있으므로 이들의 勢力을 利用하기도 하고, 때로는 亞細亞各國에 散在해 있는 親共「게릴라」를 養成 또는 武器, 經濟支援의 方法을 通하여 國內政治를 交亂시키고 이를 政治的 協商의 一道具로 삼는 方法도 使用하고 있다. 結局 궁극적으로는 亞細亞 宗主國이라는 自負心을 갖고 있는 中共이 域內 競爭勢力인 美, 蘇, 日을 그때 그때 時宜 適切히 戰略을 強穩兩面으로 驅使하면서 主權을 노리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곧 世界赤化革命 達成이라는 最終目標達成을 爲한 것임에는 蘇聯의 境遇나 다를 바 없다.

· 말하자면, 70年代에 들어 美國이 亞細亞問題에 깊숙히 介入함을 꺼려함에 따라 極東에서의 힘의 真空狀態가 나타나고 「닉슨」- 「사토」聲明이 暗示하듯이 向後 亞細亞에서 日本이 美國을 代身할 氣味도 없지 않으며 게다가 蘇聯은 中共을 孤立하고 亞細亞外交에

서 機先을 잡기 爲해 集團安保論을 들고 나오고 繼續 日本을 비롯하여 台灣 및 東南亞 諸 自由陣營까지도 秋波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淸定的으로 美軍의 撤収를 固執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기도 하고, 日・謀間의 接近을 警戒, 妨害하고 있으며 結局에는 匪細 亞에서 自國의 影響力이 支配하기를 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從來 自由陣營이 이어왔던 ASEAN 諸國에 對한 中共의 浸透과 그 反應을 살펴보는 것은 興味있는 일 것이다.

1) 泰 國

強力한 反共政策을 堅持해온 泰國은 70年代에 들어서 貿易逆調 是正을 爲한 通商擴大의 必要性和 中共支援下에 蠢動하는 國內 共產 「기릴라」의 活動 沮止에 中共의 影響力을 얻을 必要性에서 그리고 將次 美國의 撤収를 勘案한 自國安保를 爲해서 中共에 接近하지 않을 수 없었다.

72년에는 中共이 廣東 貿易 박람회에 泰國을 招請하고 그 後 海外公館들을 통해 이러한 泰國의 關係改善 意思를 打診케 하였으며 73년에는 泰國의 卓球團과 交換競技를 통하여 「퐁·핑」外交를 벌이면서 中共・泰國 兩國間에는 徐徐히 接近하기 始作하였으며 그후 73年, 74年, 75년에 各各 泰國 政府 高位層을 招請하여 「디젤」油 12萬 5,000.톤을 提供하기로 約束하는 등 머지 않은

將來에 外交關係 樹立을 可能하게 할 길을 터 놓았다.

2) 「필리핀」

「필리핀」은 70年代에 들어 各種 非公式, 文化交流를 中共과 始作하고 72.3에는 「마르크스」大統領 同生을 北京에 派遣하여 「이멜다」女史의 北京訪問을 招請 받았으며, 74年 5月에는 兩國間 直接交易에 合意한 後 北京을 訪問한 「이멜다」女史와 毛沢東이 直接 對談하는 機會를 마련하는 등 中共의 配慮도 말았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3)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ASEAN 諸國 中에서 가장 中共과 빨리 修交했을 뿐만 아니라 ASEAN 5個 會員國 가운데 아직도 唯一한 對中共 修交國으로서 中共에 活發하게 接近해 온 「말레이시아」는 70年 「라자크」首相 執權 以後 非同盟頂上會談에 參席하고 73년에는 차레로 越盟, 東獨, 北傀와 修交하는 등 中共과의 修交에 對備한 事前交渉을 展開하고, 「게릴라」掃蕩, 政權基盤 구축 等, 國內 脆弱點 補強에 힘쓴 後 「라자크」首相 自身이 中共을 訪問하여 修交 協定을 成立시키게 되었다. 여기에는 勿論 「말레이시아」의 國內 問題解決과 販売市場 擴大等の 意圖가 包含되어 있지만 中共側으로서는 「말레이시아」와 修交함으로써 東南亞諸國의 中共에 對한

警戒態勢와 恐怖意識을 緩和시키고 特히 ASEAN諸國과의 接近을 容易하게 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고 아울러 蘇聯의 對中共 包圍戰略을 瓦解시키려는 意圖가 作用했기 때문이다.

4) 「싱가포르」

李光耀 首相의 確固한 反共政策 때문에 中共과 「싱가포르」는 이렇다 할 뚜렷한 關係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72年中에 「싱가포르」의 通常使節團, 醫療代表團이 中共을 訪問한 바 있다.

5) 寮 洲

中共은 寮洲가 國家承認 조차 하지 않은 時期에도 繼續 兩國間 關係改善을 爲해 各種 相互訪問外交를 벌여 왔으며 72.12에 是 寮洲의 勞動黨이 勝利하자 人民日報를 통해 即刻 이를 歡迎하고 나섰고 兩國은 該해 12月에 同時承認하는 한편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이 後 寮洲는 中共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이룩한 自由陣營中 한 國家가 되었다.

다. 北傀의 浸透樣相 및 現況

여기서 北傀의 對中立國 및 自由國 浸透樣相을 살펴 본다.

民族과 國土의 分斷이란 特殊한 政治的인 現實에 基因한 南北韓 力學關係와 直結되어 있는 北傀의 對外政策의 特殊目的은 現下位勢

의 上昇 및 南北勢力의 平衡化를 追求함으로써 「두개의 韓國觀」을 全世界에 扶植시키려는 것이다 하겠다. 分断國의 分断現實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國際社會의 一般的인 傾向이 뚜렷해지고 있는 1970年代의 南北時代에 있어서, 南北의 外交網은 더욱 擴大될 것이며, 南北外交競合도 더욱 熾熱해질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이에 對處한 北韓의 外交戰略은 北韓이 「集中外交」를 展開해 온 中立國 即 中東, 「아프리카」, 南美 및 東南亞諸國을 비롯해서 南韓과만 外交關係를 맺어온 自由陣營과 國際機構 등에서 銳利하게 나타나고 있다. 南北時代의 序幕을 北傀는 그네들의 對外政策의 特殊目的 即 國際社會에 있어서 南韓과 同等한 地位를 構築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南北韓을 同等히 待遇하는 모든 資本主義 國家와 修交할 用意가 있다」는 柔軟한 外交姿勢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北傀의 姿勢는 從來 段階的인 接近方法 即 招請外交, 親善團體組織, 文化交流 등을 통해 첫 段階로 公報館이나 貿易代表部를 設置, 그다음 段階로는 總領事館으로 昇格시킨 다음 最終的으로는 大使館으로 變型시킨 過程을 훨씬 벗어나 일약 南北韓同時修交라는 接近方式으로 果敢히 外交姿勢를 轉換시키고 있는 現實이다. 特히 南北韓의 對等한 國際的인 地位確保와 나아가선 「6 個年經濟計劃」達成에 必要한 資本 및 技術導入을 꾀하고

있는 北韓의 外交戰略을 現實的이고 實利追求的인 自由陣營諸國에 있어서의 「等距離政策」을 促求하고 있는 形便이다.

北傀의 이러한 外交的 成果는 73年中 西歐의 6個國에 達하는 國家의 承認을 得하는가 하면, 最近에는 印度를 爲始한 南亞細亞地域, 中南美 및 東南亞의 濠洲, 泰國, 「말레이시아」, 「버마」, 印尼 등과 修交했고 「싱가포르」, 「필리핀」, 「뉴질랜드」 등과는 언제라도 修交할 수 있는 立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助成되어 가고 있는 北傀는 最近 自己네가 「唯一合法政府」임을 豪言하고 나서기조차 하고 있다.

이러한 北傀의 對中立, 自由圈 外交活動展開上의 特徵을 体系的으로 分析해 보면,

첫째, 對內的으로 外交活動의 單一指導體制를 들 수 있다. 即 黨國際担当 秘書下의 國際部·宣言煽動部長과 政務院外交担当 副總理 直屬下에 外交部를 運營하는 形態를 取하고 있다.

둘째, 該當國의 左傾勢力을 積極活用하는데 있다. 即 各國의 國際共產主義組織과 左傾人士를 親北 壓力團體로 積極活用하는 것이다. 70年代 들어 이러한 活用事例를 몇가지 들어 보면 72年 9月 「스웨덴」의 社會民主黨 青年同盟으로 하여금 北傀 承認要請 決議案을 採択하도록 하였으며, 73年 4月 「덴마크」에서 共產黨

으로 하여금 北傀承認을 促求하게 했고, 72年 6月 日本에서는 83
個 革新市場이 「朝·日 国交正常化」를 目標로 한 双方 姉妹都市
結緣推進을 決定한 바 있고, 74年 1月 伊太利의 第一가는 貿易
商社인 GOGIS社長이 北傀 通商代表部를 設置하도록 压力을 加한
事實, 74年 1月 「프랑스」의 「仏-北傀 親善協會」에 資金을
支援하여 新規會員을 募集하도록 劃策하는 등 그 事例는 許多하다
세계 訪問 招請外交의 強化다. 北傀는 72年 以後 訪問外交에
重點을 두어 왔으며 73年中에는 72년에 比해 对西方 招請件數
의 約 22% 그리고 訪問件數는 116%의 增加 現象을 보였고 訪
問对象國을 72年中의 20個國에 32個國 (60%增)으로 擴大하였다
네째 現在 宣傳拠点을 強化하는 것이다. 即 各種 親善團體의
金日成研究小組織의 하는 名稱의 組織을 強化하고, 現地語 出版物을
發刊 配布하며 萬壽台 芸術團 等 大規模 芸術團 巡回公演을 實施하
여 浸透手段으로 使用하는 한편, 各種 박람회 參與, 「마스게임」
指導 (「우잔다」) 等を 方便으로 政治活動의 契機로 삼는 것이다.

다섯째 電譯修交方法의 採択이다. 即 從來 代表部→總領事館→大
使館의 方式을 벗어나 直接大使關係로 修交하는 方法인데 73年中
에는 17個 修交國中 15個國이 이에 該當하고 있다.

다음으로 新生獨立國, 國際機構, 解放戰線의 指導者 및 個別의 人

士에게 集中的인 大量祝電外交를 벌이고 있다는 点이다. 例를 들
어 74年 新年祝電交換數는 80個國 323通에 이르고 있다.

北傀의 이러한 外交活動展開上의 特徵을 그대로 模倣할 必要는
없다 하겠으나 檢討의 余地가 있을 것으로 본다.



3.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改善 問題

周知하다시피 韓國은 73.6.23 朴大統領閣下에서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 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는 要旨의 7個項에 達하는 6.23 平和統一政策을 內外에 闡明한 바 있으며 同 平和統一政策의 宣言 以後 韓國의 對 共產圈 門戶開放政策은 積極的으로 推進되어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과는 學者, 體育人의 往來와 國際會議에의 參加가 活潑해졌다.

또한 經濟, 交易面에서도 第3國을 통한 間接貿易이 1971, 1972 年보다도 두드러지게 伸長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人的交流와 經濟는 不安定한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國家에의 入國問題마저도 流動的인 狀態에 있다. 한가지 이들 國家에 對한 接近相에 있어 現實化된 것으로는 1974 年 9月1日을 期해서 遞信部가 發表한 非敵性 共產圈과의 郵便交換을 正式으로 設定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對共產圈 接近의 段階的 措置는 앞으로도 繼續 研究되어 現實化될 것이지만 問題는 우리의 姿勢 修正에 있는 것이 아니라, 接近對象인 共產諸國의 反應이 어떻게 發展되어 갈 것인가

하는 點에 있는 것이다. 이에 對한 解答은 지금까지의 對共産圈 接近相에서 나타난 諸般狀況을 檢討, 分析한 結果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韓國의 對共接近의 必要性和 지금까지의 對共接近 現況을 把握하면서 이와같은 韓國의 接近動向에 反映되고 있는 共産諸國의 對韓國 態度 및 그 制約要因을 分析해 보려고 한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本章에서 引用한 統計가 政府의 公式発表가 아닌 것이라는 點과 接近方案의 提示가 創期的인 또는 例的인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點이다.

가. 對共産圈 關係改善 必要性

韓國의 對共 關係改善의 必要性은 크게 나누어 國際情勢의 變化趨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特히 6.23 宣言以後 北傀의 對自由 陣營 浸透가 活潑化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해서 볼수 있는 政治的인 側面과 經濟交流 및 海外市場의 開拓이라는 經濟的인 側面의 두가지로 크게 分類하여 考察할 수 있다.

1) 政治的 側面

韓國의 對共産圈 關係改善의 政治的인 側面에서 본 必要性은

로는 于先 東 . 西問의 平和共存이라는 世界的인 潮流에 迎合하여 韓國의 國際的 地位를 鞏固히 할 수 있도록 柔軟性있는 對外政策을 展開하고,

둘째 : 北傀의 對西方 및 對中立國 浸透, 特別 外交的 浸透政策에 對한 逆攻勢로서 北傀의 外交力량을 分散 . 制壓하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셋째 : 長期的으로는 共產圈내에 棉頭堡를 確保하여 同 地域에서 北傀의 影響力 弱화를 促進시킬 수 있다는 點等を 들 수가 있다.

2) 經濟的 側面

다음 經濟的 側面에서 본 對共接近의 必要性은,

첫째 : 韓國의 輸出市場多邊化와 拓域化를 通하여 100 億弗 輸出 目標 達成에 寄與하며 國內産業의 發展效果를 圖謀하면서,

둘째 : 對共產圈 交易擴大를 通해서 韓國의 經濟發展相을 이들 國家에게 誇示함으로서 共產諸國으로 하여금 韓國에 對한 門戶開放을 促進시킬 수 있다는 點等を 들 수 있다.

나. 韓國의 共產圈 關係改善 現況

共產諸國에 對한 接近問題가 具體性을 띠고 論議된 것은 197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1960年代까지는 國際情勢上으로 나 對內與件上으로 볼때 對共產 接近이란 未知의 課題에 不過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經濟人, 學者, 「스포츠」人의 交流를 비롯하여 1971년부터는 第3國을 통한 間接貿易이 漸進적으로 增大되고 있는 實情이다.

于先 <間接>이란 用語自体가 意味하는 것은 相互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면 韓國과 共產諸國과의 接近은 아직도 먼 距離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確實한 것은 東·西冷戰의 潮流가 強하게 밀려왔던 1960年代 보다는 1970年代인 現在 韓國과 共產圈과의 關係가 보다 接近된 狀態에 있다고 하는 點이다. 果然 現在 韓國의 對共產圈 接近은 어떠한 狀態에 있는지는 알아보기 爲해 政治, 經濟, 社會, 文化的 側面에서 나타난 徵候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다만 韓國의 不斷한 對共接近 努力에도 不拘하고 中共이 아직도 이에 對한 特別한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東南亞 共產國과의 關係는 全無한 實情임으로 本章에서는 現在까지 一部 交流가

行해졌거나 行하여지고 있는 蘇聯과 東歐諸國으로 그 範圍를 限定하여 考察하려 한다.

1) 政治的 接近現況

政治的 側面에서 蘇聯을 爲始한 東歐諸國과의 關係를 살펴볼 때 아직은 이렇다할 成果는 없다.

韓國의 立場에서는 6.23 宣言을 期하여 이들에게 門戶를 활짝 開放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立場에 서 있는 共產國들은 이렇다한 反應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共產諸國의 韓國에 對한 無關心한 態度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分析되어야 할 것이지만 于先的인 것은 共產國의 立場이 어떠한 狀態에 있는가를 먼저 考慮해야 할 것이다.

東歐諸國하면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유고」, 「알바니아」 등의 8 個國을 指稱하는 것이 普通이나 境遇에 따라서는 蘇聯을 包含시키기도 한다. 何如問 이들 國家들의 性格은 한마디로 共產主義를 追求하는 面에서는 同質性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國家傳統, 利益, 國民生活 등의 部門에서 볼때는 各國의 立場과 地地가 모두 다르며 매우 複雜한 性格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東歐諸國自體의 構成이 매우 複雜化되고 있지만 韓國과
의 政治的 接近을 不可能하게 해온 原因으로는 이들 國家와 北傀
와의 關係이다.

于先 蘇聯의 境遇는 中. 蘇國境紛爭과 關係하여 東北亞에서 北傀를
各己 自己 勢力國下에 끌어들이기 爲해 血眼이 되고 있다. 따라서
蘇聯으로서는 北傀의 비위를 맞추기 爲해서라도 韓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消極的일 수 밖에 없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또한 東歐諸國의 境遇로 볼때에도 이들 國家들이 正式으로 大使級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最近에는 北傀의 緊요한 紐帶
強化外交를 展開하고 있어 相互關係가 보다 密接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原因은 直接的으로 韓國의 對共接近을 沮害 또는 妨害하는
障礙要因들로서 政治的 接近을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政治的
側面에서 볼때 앞에서 言及한대로 아직은 對話初期의 분위기도 넘지
못하고 있는 事實이다.

2) 經濟的 接近現況

政治的 側面에서는 直接. 間接的인 妨害要因으로 어떠한 成果
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經濟的 接近面에서는 若干의 成果를 올
리고 있다.

經濟的 接近 역시 政治的 制約性은 받는 가운데 第3 國을 통한 間接貿易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들 國家와의 經濟交流는 主로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이탈리아」의 仲介貿易商을 통한 商品輸出形式은 取해 오고 있다.

1971年度에는 「체코」와 「헝가리」에 局限되었으나 1972年度에는 「체코」, 「헝가리」, 「유고」, 東獨, 「폴란드」, 蘇聯으로 輸出 對象國이 增加되었고 1973年度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追加되었다.

輸出額 面에서 볼때 1971년에 51萬7,000 弗, 1972년에 153萬3,000 弗로 1971年의 3倍에 達했고 1973년에는 649萬5,000 弗 (契約額 包含) 에 達했다.

輸出品目은 1971년에 양말, 「세타」, 兒童服, 보석함등의 種類였으나 1972년에 들어와서 부터는 이 以外에 금속완대, 벽시계, 양식기, 한천, 골덴服地, 칠기화병 「드레스」 등으로 多樣해졌고 1973年에도 假髮, 「와이셔스」 등의 品目이 添加된 것으로 主로 纖維類 및 輕工業製品에 屬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經濟交流의 実績은 앞으로 增大될 것이 豫想되고 있지만 直接交易의 可能性을 期待하기에는 現 段階에서 어려울 것같다.

그 理由는 앞에서 言及된 政治的 制約性 外에도 이들 國家들 自体가 안고있는 經濟體質上의 問題點때문이다. 統制經濟體制 下에서 모든 貿易活動은 國家独占 貿易形態를 벗어날 수 없으며, 對外貿易의 優先順位 역시 國家計劃의 統制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東歐 및 蘇聯과의 對外貿易 活動은 貿易業者의 利害와는 關係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當面한 計劃上에 策定되어 있지 않은 物品의 購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 國家와의 經濟交流面에 있어서 政治的 制約要因, 共產國自體의 經濟體制上의 問題點, 北傀의 끊임없는 妨害活動等을 우리의 對共 經濟進出을 더디게 하는 要素들인 것이다.

그러나 直接 또는 間接的인 道路를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共產諸國의 對西方進出 進路를 把握하면서 6.23 宣言에 立脚한 對共接近을 強化해 간다면 이들 國家의 門戶는 우리에게 보다 넓게 열려질 것이다.

3) 非政治的 人士交流 現況

< 蘇聯과의 關係 >

蘇聯과의 交流은 1973 以來 餘他 共產國에 比해 比較的 活潑히 展開되고 있다.

1973 년의 境遇로는 5.27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던 國際劇藝
術會에 參加申請한 韓國國籍 所有의 柳德馨氏에게 入國査証을 發給
한바 있고 6.15 에는 韓國 經濟人(金容完, 全澤瑤) 2 名의 蘇聯訪
問을 許容한데 이어 7.11 朝鮮日報記者 慎鏞碩의 入國을 許可하고
8.15 에는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유니버시아드」大會에 韓國選
手團이 參加하도록 正式 招請(5.24 確認)한바 있다.

또한 1974 年에 들어서서도 10.19 蘇聯「모스크바」의 國立圖書
「레닌」圖書館이 5 券의 冊字를 國會圖書館에 發送해온 것을 비롯
하여 11.19 「뉴욕:시티센타 제퍼리 발레」團의 「오키스트라」指揮
者 郭昇氏의 蘇聯訪問을 許可하였고 特히 이에 앞선 6 月 정명훈
君이 「차이코프스키」音樂祭에서 當當 2 位를 차지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記憶에 생생하다.

< 「유고」와의 關係 >

東歐圈中 우리나라의 代表資格으로 韓國人이 公式 訪問한 곳은
「유고」가 最初이다. 即, 1961 年 9 月 同國의 首都인 「베오그
라드」에서 開催된 國際 「펜 클럽」大會에 白鉄·韓戊淑氏가 參席
했던 것을 起點으로 하여 1961 年 10 月에는 韓國蹴球選手團이
「베오그라드」를 訪問한바 있다.

東歐國中 「유고」와는 餘他 東歐諸國에 比해 보다 活潑한 人的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며 1971年 9月에는 韓國通商使節 團(안광호 「코트라」支社長等 8名)이 「자그레브」博覽會를 參觀 키 爲해 「유고」를 訪問한바 있다. 이와같은 經濟使節團의 東歐 國 訪問은 「유고」가 처음이었으며, 餘他 東歐國에의 訪問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北傀의 背后工作으로 韓國經濟의 對東歐進出을 沮止시켜 보려는 政治的妨害工作의 結果에서 나온 것이다.

「유고」와의 人的 交流現況中 主要事項은 1966年 6月 옥지수 (서울大 教授)外 2名의 世界人口學術代表團會収 參席을 비롯하여 1969年 10月 第4次 IOC常設總會에 KOC常任委員인 조동계氏 가 參席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보다 頻繁한 「유고」訪 問이 있었는바 1971年 7月 法을 通한 世界平和會議에 이태영 梨大 教授가, 1972年 6月 駐「오스트리아」, 「코트라」所長인 윤 덕용씨가, 1972年 8月 김운태 서울大 大學院長이, 1972年 12月 國際社會學會議에 高麗大 洪승직 教授가, 1973年 3月 第32回 世界卓球選手權大會에 韓國代表 김창원團長外 18名이, 1974年 7月 國際山岳聯盟 박재을 會長外 1名이 各各 「유고」에 入國하여 所 期의 活動을 하였으며, 이 以外에도 實業人, 新聞記者를 비롯한 學 者들의 「유고」訪問이 있었다.

한편 「유고」人의 韓國訪問은 1969年 6月 「미켈」女史(「펜

클럽)會員)가 서울에서 開催된 國際「펜」大會에 參席한 것을 비롯하여, 1971年 5月 「유고」船舶의 釜山港 入港 1971年 10月 「보그다노비치」實業人の 訪韓, 1973年 8月 「사샤 프레세른」學生의 技術研修次 富平工業団地 1個月 滯留, 1973年 8月 <미트 하트 알트라나직>가 工業製品 購買商談次 來韓, 1973年 10月 第13次 神經外科学會 參席次 「보리스 쿠분」博士의 訪韓, 1973年 12月 「프시즈자그레브」大學의 한 教授가 地域社會開發國際比較研究「세미나」에 參觀次 來韓했고, 1974年 2月에는 「유고」船舶 「코란카」호가 釜山에 入港하여 船員 40名이 觀光을 하였으며, 1974年 6月에는 「루블라나」大의 社會, 政治, 新聞學大學長인 「브들도 벵코」氏가 國際關係研究所 主催 「세미나」에 參席한바 있다.

<「체코」와의 關係>

「유고」다음으로 韓國人の 東歐國 訪問이 일찍 이루어진 곳은 「체코」이다. 1966年 9月 김창근(當時 國會議員)氏가 國際排球聯盟總會에 參席次 「체코」를 訪問한 以來, 1967年 4月에는 女子농구팀이 「체코」開催 世界女子농구大會에 參加하여 銀「메달」을 獲得했으며 1973년에는 男子排球팀이 「월드 컵」男子排球選手

權大會에 參席次 「체코」를 各各 訪問했다. 1973年 2月에는 世界 「피겨 스케이팅」大會에 韓國代表 1名(任員 3名)이 參加하기 爲해 「체코」를 訪問했다. 1974年 1月 16日에는 中立國監視委員團 代表인 「체코」人 「스몰다스」中將이 서울 觀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와 「체코」側은 韓國人의 「체코」訪問을 抑制시키려는 傾向을 띄어 왔는바, 지난 1974年 2月 5日 「체코」의 「브르노」博覽會 參觀次 入國하려던 韓國人이 入國拒絶을 當했으며 1974年 8月에는 學術調査 및 觀光目的으로 「체코」를 訪問하려던 國際住宅「세미나」(「오스트리아」開催), 參席 韓國代表의 入國을 理由없이 拒絶하였다.

이와같은 「체코」의 對韓態度 硬化는 1973年 6月 23日 「체코」의 「후사크」黨幹記長이 北傀를 訪問한 以後, 北傀의 妨害工作이 加熱化된 結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코」-北傀間의 關係는 最近 1, 2年間에 두드러지게 緊密化되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附〕〈「폴란드」와의 關係〉

「폴란드」에 韓國代表가 正式으로 「비자」를 發給받아 入國한

것은 1969年 6月 5日 第68次 I O C總會 參席次 장기영氏外
3名이 「바르샤바」를 訪問한 것을 들수 있다. 當時 6名의 韓
國代表가 入國「비자」申請을 하였으나 4名에게만 入國이 許容되었
다. 그后 1971年 11月 國際聯合 通商開發會議 (U N C T A D) 技
術訓練次 안승혁 (交通部 海運局) 氏가 「바르샤바」를 訪問했고,
1972年 8月에는 주섭일 中央日報記者가 「폴란드」旅行을 했으며,
1973年 8月에는 世界保健厚生「세미나」에 이덕호 延大 教授가
參席하여 「폴란드」의 保健現況을 살펴보았다.

한편 「폴란드」人의 韓國訪問은 1973年 12月 北韓常駐 中立
國監視委員 한사람이 觀光次 서울을 다녀갔으며, 1974年 1月에는
「미추카」少將 (中立國監視委員團 「폴란드」代表) 이 서울을 觀光한바
있다.

그리고 「프랑스」國立 「발레」團이 1974年 4月 來韓했을 때
「폴란드」國籍의 「지에레타」氏가 서울에 왔었다. 「폴란드」人의
來韓은 아직 이렇다할 実績이 없는 形便이다.

한편 지난 1974年 4月 22日~5月 2日間에는 西獨 「킬」大學
金淵洙博士가 「폴란드」, 「체코」를 訪問, 東歐圈內에서의 韓國學
研究實態를 調査한 바 있다. 同訪問 記事는 1974年 7月 7日字
韓國日報紙面에 「바르샤바」女大生들은 <春園의 <<友情>>을 읽고

있다>는 題下에 크게 報道된 바 있다.

< 「불가리아」와의 關係 >

「불가리아」와의 人的 交流은 1970年 9月에 同國의 首都 「소피아」에서 開催된 第12次 國際排球總會에 김한수 林亨彬氏等이 參席한 바 있었으나 強制出國을 당한 事實이 있으며 後 1973年 7月에는 장행훈 東亞日報記者가 觀光目的으로 「불가리아」를 旅行했으며, 1973年 10月에는 「바르나」 IOC總會에 장기영, 김택수氏等이 「불가리아」의 海岸休養都市인 「바로나」를 訪問한 바 있다.

1974年 4月에는 「프랑스」의 「발레」團員 一員으로 「불가리아」國籍을 가진 「라자호프」氏가 서울을 다녀간바 있으며 外의 「불가리아」人의 韓國訪問은 없었다.

最近 1974年 10月 21日에 第18次 世界体操選手權大會가 「바로나」市에서 開催되었을 때는 韓國選手代表 11名이 參加하여 1週日 間 滞在하였다.

< 「루마니아」와의 關係 >

「루마니아」는 東歐圈中 「유고」다음으로 對西方 接近이 活潑하여 獨自路線을 걷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對韓關係에서는 冷淡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한때는 「루마니아」의 実業人이 交易可能性을 打診하기 爲하여 1971年 9월에 駐「오스트리아」韓國大使館을 通해 入国申請까지 했으나 別다른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74年 4月 15~20日間 「부카레스트」에서 開催된 第114次 IPU理事會에는 朴浚圭議員을 團長으로한 5名의 代表團이 韓國議會代表로서 「루마니아」를 公式訪問하였으며 1974年 6月에는 世界教育聯合會 主催 科學技術社會에 關한 會議에 金용준 教授가 參加하기 爲해 「루마니아」를 訪問하였으며, 1974年 8月 18日~30日間에는 1974年 世界人口總會에 韓國代表 13名이 參席키 爲해 「부카레스트」를 訪問하였다.

이와같이 연이은 國際會議가 「루마니아」에서 開催됨에 따라 韓國人의 入国人員 및 回數가 增加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23宣言에 對해 肯定的인 反應을 表示 (1973年 7月1日字 韓國日報 參照)한 바 있음에도 不拘하고 最近에 들어와 「루마니아」의 對韓國態度는 硬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 「헝가리」와의 關係 >

「헝가리」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人的交流面에서 볼때 餘他 東歐 諸國(東歐除外)과 比較하여 매우 低調한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그 理由中の 하나는 「헝가리」에서 開催되는 國際會収의 頻度數가 極히 적기 때문이다.

「헝가리」와의 交流는 1973年 7月 韓國人으로서 처음으로 박중희 東亞日報「런던」 駐在特派員이 觀光目的으로 「헝가리」를 旅行한 事實이 있을 뿐이며 75.1.27부터 30日까지 「헝가르텍스」 貿易商社가 「오스트리아」輸出 仲介商이 蒐集한 韓國商品 見本을 「헝가리」内の 同社 展示館에 展示한 일이 있을 뿐이다.

< 東獨, 「알바니아」와의 關係 >

東獨과의 直接的인 人的 交流가 行해진 것은 지난 1973年 6月에 西「베르린」의 國際新聞研究所에서 研修中이던 東亞日報記者 남시욱氏가 東「베르린」을 1日間 訪問한 事實이 있을 뿐이며 그 外에는 東獨에 入國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알바니아」와는 아직 아무런 人的 交流도 없는 事實이다. 以上에서 볼때 人的 交流面에서 「헝가리」, 東獨, 「알바니아」와의 交流는 全無한 狀態이며 그밖에 國家에서도 極히 制限된 範圍內에서만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는 事實이다.

다. 共產諸國의 對韓態度

韓國의 對產產圈 關係改善을 爲한 育信號에 對해 소聯을 비롯
한 中共, 東歐諸國들의 反應 및 對韓態度는 7·4 共同聲明을 前後
하여 多少 緩和된듯 했으나 南北調節委會談과 赤十字會談이 中斷된
理在에는 韓國에 對한 非難을 繼續하고 있다.

그러나 소聯 및 東歐共產黨이 比較的 柔軟한 態度를 보이고 있
는데 反하여 中共은 熱殺 乃至 非難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韓國은 70年代에 들어 互惠原則에 立脚한 國家間的 交流가 韓國
이 指向하고 있는 對外政策의 基本方向임을 이미 國際적으로 알려
지도록 하였는바 例컨데 70年 4月 「貿易去來가 禁止되어 있는 一
部 共產國家에 對해 貿易의 길을 트도록 하기위해 現行 貿易去來
法의 改正與否를 政府·與黨은 檢討하고 있다」는 政府의 發表가 있
은 以來, 우리 政府의 公式的인 態度는 『모든 나라와 關係를 맺기
를 願하고 있다』는 表現으로 一貫되어 왔으며 이것은 蘇聯이나
中共의 境遇라도 이 對象에서 例外가 되지 않는다는 內容이기도 하다.

한편 共產圈中 中共에 對해서는 6·23 宣言이 나오기 前인 73年
3月 黃海와 東支那海의 大陸棚 開發問題를 둘러싸고 韓國과 中共
이 聲明戰을 주고 받은바 있는데 韓國은 「中華人民共和國 當局과
懸案問題에 對해 協議할 用意가 있다」고 하였다.

勿論 韓國이 使用한 中共의 公式名稱使用이 國家承認을 意味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도 相對國에 好意的인 態度를 表示한 것 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中共은 「韓國은 一方的으로 外國石油會社를 動員, 油徵稅 作業을 하고 있다」고 非難하였는데 여기서 重要的 事實은 韓國의 金鍾泌國務總理가 71年 8月 6日 國會證言을 통해 이미 「非敵性 共産國家와 修交할 用意가 있다」고 하였고 72年 7月 8日에는 金溶植 外務部長官이 「소聯, 中共과 關係改善을 希望한다」는 政策決定者의 發言을 綜合해 볼때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名稱使用은 對中共接近을 爲한 多目的的인 信號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뿐만 아니라 73年 4月에 있었던 ECATFE (現在는 ESCAP로 改名) 總會에서 基調演說을 한 金溶植外務部長官의 發言에서 秩序속의 亞細亞 繁榮을 爲한 協力을 呼訴하면서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希望한 內容은 中共의 對韓觀을 打診키 爲한 一聯의 탐색 作業임에 틀림없다고 看做된다.

그러므로 現時點에서 韓國이 推進하고 있는 多目的的인 對中共接近의 「아드바운」은 결코 우리에게 不利한 事件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겠다.

한편 소聯은 南北接觸에 對해 72年 11月 15日字 「프라우다」

紙를 통해 「同協定은 南北韓間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軍事衝突을 防止하고 南北韓間 對外政策에서 合意된 措置들을 取하는 問題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있음은 그것이 具體적으로 무엇인가를 判斷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最少限 今後 韓半島內에 突發事態가 惹起되지 않는限 소聯의 態度는 南北韓間의 對話를 통한 接觸에 對해 肯定的이라고 보는바, 소聯이 對中共 견제를 爲한 戰略推進의 一環으로 一方的인 對北傀支援을 통해 南北韓間의 接觸을 妨害하려는 行動의 斷行은 여러가지 條件으로 보아 하지않으리라고 보아 진다.

소聯은 69年 6月에 發表된 이른바 亞細亞集團安安保構想을 東南亞·亞細亞諸國에 繼續 強調하고 있는데 韓國의 外務部次官은 72年 7月 17日 「소聯이 提案한 亞細亞集團安安保體制의 內容이 보다 詳細히 알려지면 이를 檢討할 것이다」고 소聯에 對한 우리의 關心事를 피력한바 있다.

勿論 우리의 이같은 反應에 對해 소聯側의 態度表明이 없음은 事實이나 韓國의 立場에서 볼때 그와같은 姿勢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소聯의 對韓觀을 轉向시킬 可能性이 全無하다고만 判斷될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떠한 意圖에서 自행되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73年 5月 31日에는 소聯 商船 「페레코프」호가 「오사」

(OSA) 級 警備艇 1 隻을 曳引 濟州海峽을 通過한바있다.

이렇게 政治的인 面에서 中共·소聯 및 東歐共產諸國의 公式的인 對韓態度表明이 방관적이라고 하더라도 非政治分野에서는 活潑한 交流를 하고 있는데 海外駐在 公館員들 間의 「파티」相互 參席 招 請, 第3國을 통한 間接貿易이라든지 經濟, 商工人, 文化人의 訪問, 「스포츠」團體의 訪問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非政治的交流가 活潑한데도 不拘하고 南北對話가 中斷된 後인 74年 9月 UN 總會에서 中共·소聯의 對韓關係 發言을 살펴 보면 소聯의 「그로미코」外相은 基調演說을 통해 『北傀가 平和統一을 爲해 努力하고 있는 이 時点에서 UN 旗下 外國軍의 駐屯은 軍事的, 政治的 緊張을 造成시킬뿐이라고 強調함으로서 韓國을 비롯한 友邦國 非難態度를 固守하고 있고 中共의 喬冠華外相은 「그로미코」에 比해, 보다 詳細하고 具體的으로 ① 北傀의 自主的 平和統一 努力을 높이 評價 ② 韓國側 提案은 『分斷을 永久化하기 爲한 것』이라고 非難 ③ 日本 「기무라」外相의 發言을 引用 『北傀로 부터의 威脅』不存在 主張 ④ UN 旗幟下의 모든 駐韓 外軍 撤収要求 ⑤ 尹潽善, 池學淳事件을 民權剝奪이라고 非難하는等 北傀를 無條件으로 支持하며 韓國의 對共產諸國 關係改善努力에 逆行하는 態度로 一貫하고 있다.

라. 問題 點

韓國의 門戶開放政策을 內外에 闡明한지 벌써 2年餘의 歲月이 흘렀고 이와 併行한 韓國의 不斷한 接近努力에도 不拘하고 아직 이렇다할 成果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內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共產圈의 閉鎖性에 依한 對外的 問題點과 韓國에서 取하여야 할 國內的인 問題點으로 区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對外的인 問題點

對外的인 問題點으로서는 共產諸國의 自體의 特性에 따라 그 限界點이 露量되고 있다는 點이다. 韓國의 對共接近 意慾이 아무리 強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相對的 態度가 不分明하고 消極的인 樣相을 띄는 境遇에는 어쩔수 없는 것이다.

勿論 對共產圈 外交가 쉽지 않다는 事實은 西方 先進各國의 歷史的 經驗과 北傀와 對決해 오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서 皮屑로 느끼고 있다.

現在 共產圈은 蘇聯一辺度의 政策追求圈과 中共一辺度의 政策追求圈으로 大分되고 있는바, 이들 各國은 各各 中共이나 蘇聯의 對外政策을 그대로 追從하고 있는 形便이다.

따라서 韓國의 對共接近이 所期의 成果를 얻기 爲해서는 韓國과 蘇聯, 韓國 中共의 關係가 優先的으로 改稱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또하나의 對外的인 問題點으로는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부터 國際的인 緊張緩和가 이룩되고 東·西交流가 活潑해짐과 同時에 韓國의 對共接近이 積極的인 姿勢로 推進點에 따라 北傀는 마침내 자극을 받게 되었고 이에 對한 反作用으로 北傀가 緊요한 妨害工作을 展開하고 있다는 點이다.

即, 北傀는 이들 諸國과의 既存關係를 利用하여 韓國人의 共產圈 入國을 事前工作을 通해서 抑制시키고 韓國商品의 對共產圈 市場進出을 封鎖하기 爲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黨·政府의 首腦級 人士를 招請하거나 訪問시키는 外交를 展開하고 있어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2) 對內的인 問題點

앞에서 言及된 것은 主로 共產諸國의 立場이 中共이나 蘇聯 등으로 制限받고 北傀의 妨害工作 등의 外的 要因들이 對共接近의 制約要因으로 指摘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否定的인 外的 要素를 打開하고 6·23 宣言에 立脚한 對共接近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어떠한 問題點이 內在되어 있는가 하는 面을 살펴보고 이에 對한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外的

인 否定的 要因을 克服하는 길이 될것이다.

對內的인 面에서 貿易去來法 2條의 改正(1972.12.30)으로 共產圈과의 交易의 길이 더 놓았으며, 「코트라」(貿易振興公社)를 對共產圈 交易商社로 指定(1973.1.5)한 當局의 措置, 그리고 1973年 6.23 宣言으로 對共產圈 門戶를 開放한 點, 1974年 9月 1日부터 14個 非敵性 共產圈과 郵便物 交換을 實施한 點等은 對共產圈 接近에 앞서 當然히 先決되어야 할 問題들이었다.

이러한 諸般措置는 對共產圈 接近에 있어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며 우리의 積極的인 姿勢를 表明하는 契機를 造成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法制度의 改正만으로 對共產圈 接近이 우리의 뜻하는 바대로 이룩되지 못하고 있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對共產圈 關係에서 어떠한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이를 誇大하게 報道하여 當場 무슨 큰 成果라도 올린듯이 떠들어 대곤 하는 우리의 態度는 充分히 再考해야 할 問題點이라고 指摘 하고 싶다.

對內的인 問題點으로서 는

첫째 : 지나친 國內 報道를 함으로서 直接的으로 北傀를 刺戟시켜 北傀의 對共外交를 強化시켰다는 點.

둘째 : 貿易法은 改正되었으나 이에 對한 充分한 知識이 一線矣務

者들에게 傳達되지 못한 境遇가 있어 不便을 겪고 있는 點.

셋째 : 共產國으로부터의 輸入商品에 對한 處理와 保安問題

넷째 : 輸出入窓口의 一元化問題等を 優先的으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以外에도 實際 對內的인 問題點으로는 다른 여러가지가 提起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아직 對共產國 接近이 우리의 意慾만큼 이루어질수 있는 情勢가 到來하지 않았다는 事實을 勘察하여 지나친 關心만을 表出시키지는 말아야 한다는 點이다. 아직은 보다 慎重한 探索이 必要한 때문이다.

4. 結 語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改善問題는 韓半島를 둘러싼 外在的 動因 卽 國際環境의 變化趨勢로 보아 마땅히 試圖되어져야 할 當爲的인 行動過程이다.

그러나 現 時点에서 韓國의 中共, 소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 接近은 初期段階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同盟關係에 있는 北傀의 執拗한 對共產諸國 友好關係 維持努力으로 인하여 共產諸國 스스로 對韓接近을 忌避하거나 또는 消極的인 態度로 堅持하고 있는 狀況에 接해있는 것이며 特히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改善努力이 그동안 國內적으로 注目할만한 反響이나 動搖를 招來한 일은 없었을뿐 아니라 友邦國들도 憂慮를 表明한 事例가 全혀 없었다.

「互惠平等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開放을 要請하며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하도록 促求한바 있는 6.23 宣言의 第6項이 對共產圈 外交面보다 對中立圈 外交面에 比較的 無難히 奏効하고 있는것은 基本的으로 同 第6項의 精神이 中立國 外交의 生理인 等距離 外交路線과 符合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中立圈에서 北傀가 韓國과 같은 惠沢을 받고 있는것은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6.23宣言以後 韓國의 共產圈 進出이 遲遲不振한데 比해 友邦國에 對한 北傀의 外交浸透가 括目할만한 成果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友邦國間에 累積되어 있던 南·北韓 等距離外交 欲求가 6.23宣言을 契機로 그 突破口를 찾은데서 起因한 것이며 나아가 韓國의 對中·소·東歐圈 接近 努力이 友邦國의 對北傀 接近을 促進시키는데 間接적으로 作用한 事實만은 否認할 수 없겠으나 現今의 國際大勢로 보아 韓國의 對 共產圈交流努力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結果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反面 共產圈에 對한 同 第6項의 說得力을 보면 韓國의 對共產圈 同時 또는 個別接近을 南·北韓의 同等位置認定이 共產諸國으로부터 理解되어져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하나 「이데오로기의 硬直性을 脫皮하지 못한 共產諸國의 對韓政策을 劇적으로 轉換시킬만한 積極的 理由는 되지 못하고 있으며, 特히 北傀를 反帝國主義 및 反植民 解放鬪爭의 一員으로 糾合시키는 것을 意圖적으로 優先視하는 中共과 亞洲共產圈의 肯定的 呼應을 얻기에는 多少 弱한 點이 없지않다.

設使 一部 群少共產國家(여기서는 東歐諸國을 뜻함)가 韓國과의 修交 當爲性을 認定한다 하더라도 中·소紛爭의 渦中에서 어느 한 쪽의 非難을 甘受하면 서까지 對韓修交를 斷行할만큼 그들에게 있어

서 韓國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이 큰것도 아니고 또 그들 東歐共
産國家로 하여금 相對方의 非難攻勢를 反映할 수 있을만한 名分을
찾기도 어려운 難點이 있는것 같다.

뿐만아니라 韓國의 對共産圈 關係改善 問題는 強大國間의 親疎關
係 또는 幕後 恫정 與否와 函數關係를 맺고 있고 美國, 日本을
中心으로한 自由友邦諸國의 對北傀接近이 本格化해질때 그 反對給付
現像으로 韓國의 對中, 소, 東歐共産圈 接近의 可能比重은 커지기
때문에 韓國單獨의 外交努力만으로는 對共産圈 關係正常化가 어렵다
는 特性이 있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 여러가지 側面을 綜合해 볼때 共産諸國의
對西方浸透 特히 北傀의 外交浸透에 対応하기 爲해서는 北傀의 浸
透을 最大限으로 遲延시키기 爲한 對友邦國 說得外交를 展開하는
消極的 方策과 우리 自身이 能動的으로 共産圈에 進出하는 積極的
方策을 並行시켜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基本方向은 變할 수 없다
하더라도 共産圈 스스로 對韓修交에 나서도록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見地에서 共産諸國이 가까운 時日內에 對韓修交을 斷行할
수 있는 名分 契機, 壓力, 雰圍氣를 韓國이 積極적으로 만들어 주
는 方案을 特別히 講究해야 할 必要性이 抬頭하고 있으며 國際社會
에서 韓國의 比重을 높이고 強大國間의 恫정 雰圍氣를 造成해야

한다는 見地에서 友邦國의 支援外交도 새로운 角度에서 活用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5. 對 策

가. 明確한 優先順位 決定에 依한 現實的 政策運用

中·소紛爭이 激化一路에 있는 現情勢下에서 共產主義의 宗主國을 自處하고 있는 中·소 雙方을 滿足시킬 수 있는 兩面外交를 摸索하는 것은 無理한 狀況이며 따라서 우리가 共產諸國中 가장 接近하기 쉬운 相對를 選擇해서 接近努力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現在로서는 外交의 基本바탕이 되고 있는 「遠交近攻」原則에 立脚, 韓半島의 現狀固定化에보다 큰 関心を 갖고 있는 소聯·東歐圈으로 外交의 力點을 一旦 集中시키는 것이 效果的일 것이다.

나. 소聯의 接觸方式에 對한 積極的 適應 및 對소 劃期的 誘引策 講究

現在까지의 接觸經驗으로 보아 소聯은 서울이나 「모스크바」에서의 本格的인 政治協商보다는 相當期間동안 第3國에서의 半公式 接觸을 通해 서로가 責任없는 打診의 時間을 가져려고 하고 있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는바 韓·소關係設定問題가 韓國側에게 더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以上, 韓國으로서 는 소聯의 對北傀立場을 勸案해 가면서 秘密主義에 優先한 接觸

対象의 擴大에 注力하는 한편 高度의 專門家(특히 対象國語에 能
通한 者)를 養成 이를 派遣함으로써 對話進展의 效果를 期해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소聯의 関心を 一挙에 喚起시킬 수 있는 補
助戰術의 驅使도 要請되고 있다.

即 그 例로서「亞細亞 集團安保構想이 亞, 太地域國家의 地域協力
構想에 違背되지 않고 友邦國의 權益에 沮害되는 것이 아니라면
韓國도 肯定的으로 檢討할 用意가 있다」는 式의 發言(但 美國의
事前 諒解가 必要)을 外務部長官의 記者會見을 通해 流布시킨다면
소聯의 好感을 一挙에 獲得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聯으로서도
亞細亞 平和를 爲해 對韓接近을 試圖한다는 名分이 서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다. 東歐 衛星國에 對한 接觸交流 強化와 多角的 交流에 依한 友好
雰圍氣 增進

現在 韓國이 力點을 두고 있는 對東歐圈 人士交流 및 經濟
文化交流努力은 韓國의 對小國關係樹立을 前提로한 「모델·케이스」가
됨으로 이와같은 部面에 더욱 努力을 傾注함으로써 韓·小國關係樹立
을 爲한 雰圍氣를 계속 造成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소聯으로서도 韓國·東歐衛星國과의 接觸關係를 韓·小國의

弱極的인 關係樹立을 前提한 하나의 間接的 手段으로 看做하고 계속 注視하고 있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라. 友邦國의 集中支援 外交獲得 努力

友邦國의 散発的인 對소說得外交는 이제까지의 經驗으로 보아 別다른 劇的效果가 없다는 것이 立証되었기 때문에 모든 韓國의 友邦國이 「一挙에 對소說得」을 展開하고 自國의 對소外交 調整時 반드시 韓國問題를 條件으로 提示한다면 小聯·東歐 衛星國의 對韓修交는 意外로 쉽사리 實現될 可能性이 있다.

마. 韓國의 民主力量·國防決意 誇示

對共協商에 臨함에 있어 「힘」을 絶對的 背景으로 해야 한다는 原則은 對共產諸國 接近問題에 있어서도 例外가 될수 없는것인데 北傀의 對南挑發에 對해 韓國의 脆弱點을 露呈시키거나 國內的 社會不条理問題가 지나치게 浮刻 宣傳되어 小聯自身이 韓國政府를 不安定한 것으로 判斷할 때 小聯은 決코 誠意있는 對韓接近을 考慮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北傀가 大·小規模의 挑發을 敢行할 경우에는 卽刻 이를 武力으로 膺懲하거나 다른 方途로 納得이 갈만한 對備策을 取함으로써 國防에 對한 國民의 明白한 決意를 行動으로 表示해야 하며

海外弘報面에 있어서도 對共產圈弘報活動을 強化한다는 原則下에 對內的으로 社會不條理面이 報道되는 것을 抑制하고 可能的 限 韓國의 經濟發展 및 建設相이 仔細히 P. R 될 수 있도록 配慮해야 할 것이며 이를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共產圈研究機關 및 心理戰機構를 보다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對共接觸·交流活動의 效率化를 爲한 調整機能의 強化

對소關係를 비롯하여 韓國의 窮極的인 對共產圈 外交關係樹立 課題는 決코 一朝一夕에 成就될 性質의 것이 아니고 今後에도 相當한 時間을 두고 世界到處에서 多角的인 接觸과 흥정을 거쳐야 할 課題이다.

또한 여기에는 恒時 北傀의 妨害工作이 따를 것이며 中·소紛爭으로 因해 惹起되는 微妙한 狀況이 많을 것이므로 언제 어떠한 境遇에도 機動性있게 韓國의 公式의 立場을 反映시킬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는 韓國自體的으로 專門部處의 判斷에 依한 一元的인 統制 乃至 調整機能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